



금계문화재단

KeumGae Cultural Foundation

www.kkcf.or.kr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667-1

e-mail webmaster@kkcf.or.kr

T. 061) 333-7897 F. 061) 333-7898

■ 후원기업



국내계열사

제이엠아이(주) 본사 / 공장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22-5
www.jmikorea.co.kr

제이엠텔레콤(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22-6

정문출판(주)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62-7

(주)미디어체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22-17

(주)에스디레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22-5

(주)엑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22-5

비손시스템(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25-1

해외계열사

미국법인

JMInformation, INC
801 North Lee Street EL PASO, TEXAS, 79902 U.S.A.

멕시코 법인 / 공장

JMIMX S.A de C.V
Jardines del Valle #1151 Partido Zaragoza Cd. Juarez,
Chih. Mexico 32551

중국 (위해) 법인

위해정문전자유한공사
No.67# Dalian Road,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Weihai Shandong China

중국 (소주) 법인

정문전자유한공사
1 Jiujiang Road, Shengpu Town Suzhou Industrial Park,
JiangSu China

슬로바키아 법인

JMI SK s.r.o
Slovakia Galanta Ul. Z. Kodalya [Budova Galant] 1714/33/A

슬로바키아 법인

JMT SK s.r.o
Priemyselna ulica, LOT No. 2673/1 920 01 Hlohovec Slovakia

인도네시아 법인

PT. JMIN
Jl. Industri selatan 5 EE-3K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인재육성 · 박애 · 환경 · 인간성회복

금계문화재단



금계문화재단

KeumGae Cultural Foundation

인재육성 · 박애 · 환경 · 인간성회복

공계문화재단



금계문화재단 설립 취지문

故 금계(錦溪) 정덕면(鄭德勉) 명예회장님께서서는 1976년 장남인 현(現) 제이엠그룹 정광훈(鄭光勳)회장과 함께 정문출판(주)을 설립하여 32년 동안 건실하게 경영하시어 제이엠아이(주)와 제이엠텔레콤(주) 두 회사를 코스닥 상장회사로 성장시키셨고, 한국 외 5개국에 12개 법인을 거느린 제이엠그룹으로 발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한·중·일 서역교류진흥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시며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다.

故 금계(錦溪) 정덕면(鄭德勉) 명예회장님께서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을 평생 동안 실천하셨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늘 강조하셨다. 이러한 故 금계(錦溪) 정덕면(鄭德勉) 명예회장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제이엠그룹과 자손들이 기금을 출연하여 금계문화재단(錦溪文化財團)을 탄생시켰다. 금계문화재단(錦溪文化財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경제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2. 불우한 환경이나 신체장애로 고통 받거나 소외된 이웃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
3. 다천문화상, 금계문화상을 제정하여 문예를 장려하고, 청소년과 심신이 연약한 자들을 상담하여 주도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써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이다.

2008. 12. 30.

재단법인 금계문화재단
이사장 정 광 훈

인재양성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금계문화재단은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사업을 통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 할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초·중·고·대학생 및 장애아동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을 도모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폭넓은 학술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이며 장학금이 지원되는 학교 및 단체가 진행하는 과학행사, 예술행사, 전람회 및 강연회를 지원함으로써 개성 있고 유능한 인재발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계문화재단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능력 있는 인재가 되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1. 학업성적 우수 학생, 장애 또는 불우아동에 대한 장학사업

목적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성취 의욕을 더욱 북돋아 주고, 신체장애나 경제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할 인재 육성을 돕는다.

사업내용 : 초·중·고·대학생, 장애아동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거나 각급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지급하여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돕고, 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을 돕는다.

4. 청소년, 장애인, 불우아동, 심신연약자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목 적 : 청소년, 장애인, 불우아동, 심신연약자들을 상담하여 주도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

사업내용 : 청소년, 장애인 불우아동, 심신장애자들에게 전문 상담 팀을 구성하여 개별 상담은 물론, 삶의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단기 또는 장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돕는다.

3. 문예를 장려기 위해 다천문화상과 금계문화상을 제정하여 시상

목 적 : 초·중·고·일반(대학생 포함), 장애인, 불우아동의 문예 창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천문화상과 금계문화상 그리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상을 제정하여 시상한다.

사업내용 : 초·중·고·일반(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다천문화상과 금계문화상 그리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상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상금 후원 및 문예 창작 활동을 돕는다.

2. 학술 및 문화 예술행사 개최 지원사업

목 적 : 다양한 학술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 일반에게 소질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한다.

사업내용 : 금계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장학금이 지원되는 학교 및 각급 단체를 통해 문예행사, 전람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장소가 필요한 단체에 대여하여 문예 창작의 장으로 활용한다.



금계문화재단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錦溪 鄭德勉

故 정덕면 JM그룹 명예회장님은 평소 인재양성이 이 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양성에 힘쓰셨다.

1924년 12월 26일(양력 10월 3일) 전남 나주군 노안면 영평리 669번지에서 한학자 정우익 선생과 이양산 여사의 4남 2녀 중 3남으로 출생하셨다.

광주서중 3학년이던 18세에 한학자 겸 한의사였던 오영렬 선생과 임소연 여사의 2남 3녀 중 장녀인 오교남(음력 1924년 12월 6일생)과 결혼 하셨다.

교육계에 몸담으셨던 교육자로서 늘 인재양성의 꿈을 버리지 않으신 명예회장님은 평소 인재양성을 몸소 실천하셨으며 이후 제이엠그룹이 세계 6개국에서 IT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

4남 2녀를 두었으니 광훈(光勳) 윤곤(允坤) 윤중(允中) 윤대(允大) 정희(禎熙) 미란(美蘭)이며, 친손 6남 1녀, 외손 2남 2녀, 친증손 5남 2녀, 외증손 1남이 있다.

1946년(23세) 나주대정초등학교 교사

1948년(25세) 하동중학교 교사

1949년(26세) 하동 악양매산초등학교 교장

1950년(27세) 6.25전쟁 적 치하 피신, 어머니는 연행되어 모진 고문을 당함

1953년(30세) 광산 농공기술중학교 교감

1955년(32세) 신변 문제로 사임 후 송정리에서 미곡상

1957년(34세) 신변 문제로 귀농

1969년(48세) 상경

1976년(53세) 정문출판 회장, 한·중·일 서예교류진흥회 명예회장

1993년(70세) JM그룹 명예회장

2008년 3월 30일(음력 2월 23일) 일요일 오후 7시, 85세를 일기로 타계하시어

광산구 본량동(本良洞) 월청(月淸) 장군등 선영에 모셨다.



금계 정덕면 선생 묘역



금계 정덕면 선생 생거지(生居地), '광주 본량동'



설재서원



시중동 나주정씨 발상지



시중동 나주정씨 발상지

금계문화재단의 뿌리가 된 전통가문

羅州鄭氏

우리 나주정씨(羅州鄭氏)는 고려(高麗) 십오대성가(十五大姓家)로 고려군기감판사(高麗軍器監判事) 휘(諱) 해(諧)가 시조이고 고려(高麗) 중엽(中葉) 때의 인물(人物)이다.

우리 중시조(中始祖)인 휘(諱) 가신(可臣) 호(號) 설재(雪齋) 문정공(文靖公)께서 나주(羅州)의 주남(州南:現 洞江面良池理) 시중동(侍中洞)에서 출생하여 동명(洞名)이 공(公)으로 연유(緣由)하여 지어졌고 그 뒤에 주북(州北:現 老安面金安理) 금안동(金鞍洞)에서 살아 동명(洞名)이 또한 공(公)으로부터 유래(由來)되었다.

공(公)은 벼슬이 첨의중찬(僉議中贊=영의정) 세자사(世子師)로 천추금경록(千秋金鏡錄)을 저술하니 유교적(儒敎的) 왕도덕치(王道德治)를 이상(理想)으로 국왕에게 충간(忠諫)하는 글이었다. 시호(諡號)는 문정(文靖)으로 현조(顯祖)이니 중국에선 해동부자(海東夫子)라 칭예(稱譽)했다.

공(公)께서는 7남 3녀를 두셨으니 장남은 천이(遷怡)로 천태종(天台宗)대선사(大禪師)이며, 차남 탁(倬)은 안동(安東) 진주(晋州) 목사를 지내고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검교(檢校) 참지정사(參知政事)이었고, 3남 전(全)은 대호군(大護軍)이고, 4남은 경부(景孚)니 조계종(曹溪宗) 대선사(大禪師), 5남 길(佺)은 개성소윤(開城少尹)이며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이고, 6남 억(億)은 지유장(指諭將)이며, 7남 엄(儼)은 이부상서(吏部尙書)이고, 만호(萬戶) 박원굉(朴元宏), 중랑장(中郎將) 임저(林貯) 승상(丞相) 도대(都大)는 사위이다.

현재는 대호군파(大護軍派, 全), 소윤공파(少尹公派, 佺), 지유공파(指諭公派, 億), 상서공파(尙書公派, 儼)가 있으며, 각 파(派)에서 충효(忠孝) 열사(烈士)와 명현(名賢)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우리 정씨(鄭氏)가 나주(羅州)에 정착(定着) 세거(世居)한 지가 약 800년 전후로 문정공(文靖公) 이상은 고증(考證)이 없어 상고(詳考)할 수가 없으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약 10만 명이 넘는 종친이 있다.

설재서원 비자나무 (수령 700년)



설재서원 재단 비

경무공 존영

경무공 교지



雪齋 鄭可臣

四世 설재문정공(雪齋文靖公) 가신(可臣) 행장(1224~1298)

휘: 처음 흥(興), 사명(賜名) 가신(可臣)

호: 설재(雪齋), 무온당(無溫堂)

시호: 문정(文靖)

증조: 휘 해(諧) 궁기감 판사 나주정씨 시조

조: 휘 종산(宗産) 예빈경(禮賓卿)

부: 휘 송수(松壽) 향공진사, 은정광록대부

비(妣): 안의군부인(安義郡夫人) 정씨

나주 시중동(侍中洞) 출생, 금안동(金鞍洞)에서 살았으며, 금안동에 쌍계정(雙溪亭)과 태평정(太平亭)이 있었으니 모두 선생이 지으셨다.

고려 고종 42년 을묘(1255) 문과 급제.

충렬왕 3년 정축(1277)에 보문각대제(寶文閣待制)가 되었다.

충렬왕 4년(1278)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때, 이분희(李汾禧) 형제가 홍다구(洪茶邱)에게 아부하여 김방경(金方慶) 장군을 죄중에 이들과 함께 조정에 있음을 부끄럽게 여겨 낙향하며, 영운시(詠雲詩)를 읊으셨다.

一片纔從泥上生(일편재종니상생) : 내 한 몸을 흙에 묻혀 소박하게 살렀더니
 東西南北已縱橫(동서남북이종횡) : 동서남북 중횡으로 벼슬길을 넓혔구나
 謂爲霖雨蘇群植(위위림우소군고) : 가뭄에 단비되어 마른나무 소생케하려 했으나
 空掩中天日月明(공엄중천일월명) : 헛되이 중천에서 해와 달만 가리었네

5년(1279) 비서윤(秘書尹)시관(試官)으로 시부(詩賦)-백원항(白元恒)등 32인, 명경(明經)-정시(鄭時)등 31인 문과급제, 국자감시(國子監試)-2인을 뽑았다.

충렬왕 16년경(1290)에 천변(天變)이 있을 때, 경연(經筵)에서 열반경을 강의하다가 공이 입시(入侍)하니 왕께서 “정문학(鄭文學)이 오니 빨리 강의를 거두라” 하였으니 이로써도 공의 조정에서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지공거(知貢舉)로서 최함일(崔咸一)등 31인의 문과급제자를 뽑았다.

충렬왕 17년(1291) 9월에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세자2사(世子二師)가 되고 충렬왕 18년(1292) 세자(世子:충선)가 원세조(元世祖)를 자단전(紫壇殿)에서 뵈는데 세조가 누워서 묻기를 “요사이 무슨 글을 읽었는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스승인 정가신(鄭可臣) 민지(閔漬)에게서 효경(孝經)과 논어(論語) 맹자(孟子)를 배우며 질문합니다” 하니 세조가 크게 기뻐하며 “가신(可臣)과 같이 오라” 함으로 이윽고 같이 들어가니 세조가 벌떡 일어나서 관을 쓰면서 세자에게 꾸짖기를 “너는 비록 세자이나 나의 외손자이고 저이는 비록 배신(陪臣)이나 대유(大儒: 큰 선비)인데 어찌 내가 관을 쓰지 않고 있게 했느냐” 하고 관을 정제하고 앉아서 고려국의 풍속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치란(治亂)의 자취를 물으며 오랜 시간을 듣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교지국(交趾國) 정벌을 의논하며 고려의 세자사(世子師) 2인과 의논하라하니 공이 이르기까지 “교지(交趾)는 먼 곳에 있는데 먼 곳에 까지 군사를 동원하여 수고롭게 하기보다 사신을 보내어 항복을 종용하고 이에 불복하면 그때 죄를 물어 정벌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하니 세조도 그렇게 생각하며 한림학

사가의대부(翰林學士嘉義大夫)를 제수(除授)하였다. 세조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져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보내왔다. 충렬왕 20년(1294) 1월에 원의 세조가 죽고, 성종황제가 즉위하였다.

원제(元帝)가 요동수정도(遼東水程圖)를 보고 바다에 수역(水驛)을 설치하고 공을 하남행성(河南行省) 좌승사(左承使)로 임명하여 해운(海運)을 주관케 하려하니 공이 이르기를 “고려의 산천에 산이 10중 7이니 농사와 길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고려 사람들이 바닷길에 익숙치 못하여 오히려 불편하리라”하여 그 뜻을 막았으니 우리나라의 무거운 짐을 덜게 했다.

충렬왕 21년(1295)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郎贊成事), 사향시(思鄉詩)를 읊다.

海東南有錦城山(해동남유금성산) : 고국의 남쪽에 금성산이 있고
山下吾廬草數間(산하오려초수간) : 그 산 밑에 내가 살던 초가삼간 있네
巷柳園桃親手種(항유원도친수종) : 골목과 뒤안의 버들과 복숭아는 내가 친히 심었으니
春來應待主人還(춘래응대주인환) : 봄이 오면 응당 주인 오기를 기다리겠지

家在三千里外地(가재삼천리외지) : 집은 삼천리 밖에 있고
身遊十二帝王城(신유십이제왕성) : 몸은 십이제왕성에 노니는구나
玉簫吹斷江南夢(옥소취단강남몽) : 옥통소를 불며 고향 꿈에 젖는데
窓外無心月五更(창외무심월오경) : 창밖의 무심한 달은 새벽녘이어라

원제(元帝)는 공의 고향생각의 뜻을 알고 금안장(金鞍)과 백마(白馬)를 내려 귀국하여 중찬(中贊=侍中) 지공거(知貢舉)로 강원(姜暄)등 27인을 뽑았다.

충렬왕 22년(1296) 공은 성품이 정직 단엄하고 처사에 밝아 모두 물의(物議)에 합당했으며 당시의 외교문서가 모두 공의 손을 거치게 되었고 천추금경록(千秋金鏡錄)을 저술하였다. 벼슬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도 행동은 서생처럼 검소하니 조야(朝野)에서 태평성대가 올 것을 기대했다.

24년(1298) 무술 3월에 조정에서 물러날 것을 청했으나 왕은 허락치 않고 5일에 한 번씩이라도 조회에 나오라했다. 이 해 5월에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수사공(守司空)이 더해지고 6월 4일 졸하니 조야(朝野)가 놀라며 애도했다. 예장(禮葬)으로 묘는 경기도(京畿道) 장단군(長湍郡) 강동면(江東面) 기곡리(基谷里) 정능동(鄭陵洞) 묘좌(卯坐)에 모셨다.

문정(文靖)이란 시호(諡號)가 내려지고 충선왕묘(忠宣王廟)에



금대

배향되었다.

문의공(文毅公) 찬성(贊成) 백원항(白元恒) 선생이 공에게 드린 시(詩)가 있어 여기에 올린다.(東文選에 실려 있음)

位極貂蟬德愈光(위극초선덕유광) : 지위는 시중에 이르렀어도 덕이 더욱 빛나고
經邦妙策勝三章(경방묘책승삼장) : 나라를 다스리는 묘책은 삼장보다 뛰어났네
要令未俗知吾道(요령말속지오도) : 말속으로 하여금 우리 도를 깨닫고 하고
朝退長開萬卷堂(조퇴장개만권당) : 조정에서 물러나와 늘 만권당을 열었네

오호라! 우리나라에 대현명유(大賢名儒)로 도학을 칭한 자가 수풀처럼 많은데도 고매(高邁)한 인품으로 공을 따를 자가 없었으니 왕실(王室)에서 불경을 외우다가 공이 입시(入侍)하면 놀라서 급히 치운 것으로도 공에 대한 왕의 돈독한 신임을 알 수 있다. 화인(華人)이 공을 해동부자(海東夫子)라 칭했으나 어찌 해동부자(海東夫子)에만 그치랴! 선생의 재세(在世)에 도(道)가 선생의 마음속에 있었고 선생의 하세(下世)엔 선생의 도(道)가 유자(儒者)의 마음속에 흠뻑 젖게 했으니 더욱 숭상하고 공경할 따름이다.

나는 후학(後學)으로 선생의 고향에 살면서 공을 우러러 사모함이 다른 사람에게 비할 바가 아니나 분수를 모르고 외람되게 지었으니 군자(君子)의 입언(立言)을 기다린다.

세종 13년 신해(1431)가을 7월 16일
고령후인(高靈后人) 신장(申樞) 근찬(謹撰)



문정공 설재 정가신 선생 유허비

茶泉

鄭遇益

松山精舍

茶泉吟 다천에서 읊다

春意異凡木 봄의 기운이 돌지만 그만그만한 나무들과는 조금 다르고
춘 의 이 범 목

祇宜松竹如 다만 소나무와 대나무 기운과는 잘 맞는구나
기 의 송 죽 여

飯時多調味 술가락 들면 입맛 도는 것도 많지만
반 시 다 조 미

恒飲尚有餘 늘 즐기는 차는 입안 가득 오히려 넉넉하게 남아있네
항 음 상 유 여

恒飯飲茶香不生 늘 먹는 밥과 차에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항 반 음 다 향 부 생

頤毛何事老書聲 수염 가득한 모습 어찌 늙도록 책을 읽는가
이 모 하 사 노 서 성

臨流默會寸心坐 흐르는 물 앞 묵묵히 마음을 모아 앉는다
임 류 묵 회 촌 심 좌

鑑底無爲萬像明 물은 낮은 곳의 거울 되고 삼라만상 무위의 모습으로 밝네
감 저 무 위 만 상 명



다천 정우익 선생 묘역



다천 정우익 선생 경모비

다천 정우익 행장(茶泉 鄭公遇益 行狀)(1895~1965)



공의 휘(諱)는 우익(遇益) 일명 우석(遇錫) 호는 경암(警菴) 우호(又號) 다천(茶泉)이며 자(字)는 일문(一文)이고 나주정씨이다.

고려군기감판사(高麗軍器監判事) 휘(諱) 해(諧)가 시조이고 삼전(三傳)하여 휘(諱) 가신(可臣) 호(號) 설재(雪齋)는 벼슬이 첨의중찬(僉議中贊=영의정) 세자사(世子師)로 천추금경록(千秋金鏡錄)을 저술하니 유교적(儒教的) 왕도덕치(王道德治)를 이상(理想)으로 국왕에게 충간(忠諫)하는 글이었다.

시호(諡號)는 문정(文靖)으로 현조(顯祖)이니 중국에선 해동부자(海東夫子)라 칭예(稱譽)했다.

설재공에게서 구전(九傳)하여 휘(諱) 상(詳)은 호(號) 창주(滄州) 문과장원(文科壯元)하고 중형(仲兄)이신 문과급제 휘(諱) 심(諶) 호(號) 일헌(逸軒)인 이조정랑(吏曹正郎)과 함께 도덕(道德)과 학문(學文)으로 유림(儒林)의 종장(宗匠)이었고 경무공(景武公)과 함께 설재서원(雪齋書院)에 배향되었다.

공은 고종을미(高宗乙未:1895) 11월13일에 영안(永安)마을에서 낳으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뛰어나고 총명하여 배움에 나아가서는 문리(文理)가 일취월장(日就月將)하여 가문의 훌륭한 인재(人材)로 칭찬을 받았다.

장성(長成)하심에는 더욱 유학(儒學)에 심취(心醉)하여 학문

이 대성(大成)하니 그 명성과 인망(人望)이 멀리 떨치셨고 언행(言行)과 행동거지(行動舉止)가 절도에 맞아 깨달아서 체득하지 않음이 없으니 스승인 겸산(兼山)선생께서 함께 도(道)에 나아갈 것을 인정(認定)해 주셨다.

공은 왜적(倭敵)의 침탈(侵奪)에 대해 크게 상심(傷心)하며 '도이강갈창씨개명(島夷強喝創氏改名)'이란 글을 통하여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왜놈이 되겠는가'라고 읊었고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애국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무궁화 사랑과 충신열사를 흠모(欽慕)함이 다음과 같았다.

애근화(愛槿花), 의사 안중근(義士安重根), 의사 윤봉길(義士尹奉吉), 열사 이준(烈士李儔), 충신 민영환(忠臣閔泳煥), 면암 최익현(勉庵崔益鉉) 선생에 대해 '몸을 바쳐 나라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몸과 정신을 굽히지 않는 그 충성은 해와 함께 영원히 빛나리라' 찬양하고 또 조선매국괴수(朝鮮賣國魁首)에 대해서는 왜적은 우리 모두의 원수인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적에게 아첨하여 문을 열어 준 것은 그 죄가 너무 크다고 질타(叱咤)했으니 나라사랑의 정신이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공이 이와 같이 왜적(倭敵)의 간담(肝膽)을 거슬리게 하므로 협박이 심하여 악양(岳陽)으로 피거(避居)하였다. 아버이를 섬김에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정성으로 지체(志體)를 받들었으며 부모의 상(喪)을 당하여 묘소(墓所)를 3년간 살피고 제사를 받들면서 살아 계실 때와 같이 하셨다.

동지(同志)와 더불어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시흥(詩興)으로 거의 돌아오는 것을 잊을 정도였으며 특히 금강산(金剛山)에서는 120여 편의 주옥같은 시(詩)를 남기셨다.

그 선사(先師)를 위해 정사(精舍)를 짓고 유집(遺集)을 간행(刊行)함에도 한결 같이 정성을 다했다.

병오(丙午:1966) 11월14일에 졸(卒)하니 향년(享年) 72세였고 배위(配位)는 경주이씨 종태(鐘泰)의 따님으로 계사(癸巳:1893)6월 19일생이며 을묘(乙卯:1975) 8월3일 졸(卒)하니 향년(享年) 83세이었다.

묘는 본량면(本良面) 월청동(月淸洞) 서록(西麓)에 쌍분(雙墳)으로 비석이 있다. 4남2녀를 낳으시니 아들은 일면(日勉) 안면(安勉) 덕면(德勉) 준면(俊勉)이고 딸은 하음(河陰) 봉필석(奉弼錫)과 함평(咸平) 이상범(李商範)에게 시집보냈다.

光山 李玟秀 撰

野石 鄭光勳

금계문화재단 이사장 / JMI그룹 회장 / 나주정씨 대종회장

- | | |
|---|----------------------------|
| '76/02 정문출판(주) 창업 | '00/07 IR 52 장영실상 |
| '93/03 정문정보(주) 창업 (현 JMI) | '02/12 나주시민 공로패 |
| '97/08 정문정보(주) KOSDAQ 상장 | '03/11 신기술 실용화 정부포장 (대통령) |
| '98/06 제이엠텔레콤(주) 창업
(현재 국내 7개, 해외 7개 총 14개사) | '04/12 동신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
| '98/07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대통령) | '06/05 나주정씨 대종회장 |
| '98/12 사회복지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 '07/10 제이엠텔레콤(주) KOSDAQ 상장 |
| '99/08 서울대학교 (AMP) 47기 수료 | '07/11 제이엠텔레콤(주) 1억불 수출탑수상 |
| '00/03 성실경영, 성실납세 대통령상 | '08/09 사회복지 표창 (서울 중구청장) |
| | '09/04 노안면민상 |



성경에 기초한 기업경영과 나눔의 정신

기독교 장로인 정광훈회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업이 되고, 늘 주위에 감사하며 경건한 삶과 섬김을 실천하는 기업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단법인 금계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창업 이후 33여 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며 숱한 시련과 불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을 통해 스스로의 강점을 길러내며 끈기를 가지고 때를 기다려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냈다.

특히 가정의 화목과 노사화합의 기반 위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과 시장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검소와 끈기로 험난한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의 JMI그룹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오늘의 JMI, 제이엠텔레콤, 정문출판, 비손시스템, 액션, 미디어체인, 에스디레이 및 수많은 해외법인까지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은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GLOBAL 경영체제 확립

1946년 10월 23일(음) 생인 野石 정광훈 회장은 1976년 정문출판을 창업, 인쇄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1993년 정문정보(주)(현 JMI)를 설립하였다.

그 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국 AR로 세계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급변하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해외로의 생산기지 다변화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국내 7개사와 해외 7개사, 합계 14개사로 JMI 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놓았다.

JMI그룹은 2010년까지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천억을 목표로 Globalization 강화, 신제품 개발 및 신 성장동력사업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희망학교 지원



평화통일 자문위원 위촉



2007 JMT 코스닥 상장



염산전자고 초청 특강